



# 변화의 시대에 무엇이 유연성 있는 대응인가?

## 최근 중국 산동성내 위해시에 생산기지를 이전한 부원광학(주)의 박춘봉 사장으로부터 들어보는 중국진출 붐에 관한 전례

한·중 수교 10년째를 맞이하는 요즘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관하는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적인 불황이 장기화 및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인건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요즘엔 많은 국내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듯하다. 본 고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최근 광학업계에서도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는 중국진출과 관련하여 이미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의 경험담을 듣는 지면을 마련했다. 지난 호의 삼성테크윈 천진카메라 공장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중소기업 중에서 최근 중국 산동성내 생산기지를 이전한 富源光學(株)을 취재하고 박춘봉(朴春逢, 現 韓國光學機器協會 副會長) 사장으로부터 중국진출과 관련하여 국내 중소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및 현상황 등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취재/박지연 기자

최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은 비단 광학업계에 만 극한 된 것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국내에서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이들에겐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중에 서울지역 제조업체 213개 사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국외이전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도 이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생산거점의 일부를 외국으로 이전했거나 앞으로 3~5년 사이에 이전할 업체의 비중이 7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생산거점 일부를 외국으로 이전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44.1%, 앞으로 이전할 계획인 기업이 33.8%이었다. 생산거점 이전 후 보지로는 중국이 81%로 압도적이었고, 동남아가 6.3%, 일본이 5.1%, 미국 5.1%, 유럽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기반의 해외이전 수준도 단순조립라인의 이전을 넘어서고 있다. 해외 이전할 생각인 기업의 48.5%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라인까지 옮기고, R&D 등 핵심부문까지 옮기겠다는 기업도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복사기 렌즈와 팩스·스캐너·OHP렌즈 등을 제조생산하고 있는 부원광학(대표·박춘봉)도 얼마전 중국으로 활동무대를 넓힌 업체중 한곳이다.

부원광학에서 중국진출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3년전으로 동종 업체들간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다변화된 제품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전략적인 마케팅의 대안과 중장기 경영계획안을 근거로 중국진출을 추진하게 됐다.

### 사전 치밀한 계획과 실행, 중국지방정부의 훌륭한 외자유치정책의 도움 커

부원광학 중국공장이 위치해있는 위해시는 산동반도 동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 내륙과 연결해 있으며, 인구 246만 명, 면적은 5,436km<sup>2</sup>, 행정구역은 3個市, 1個區 관할로 나뉜다. 산업비중은 24 : 76(농업 : 공업)이고, 주요 산업으로는 경공업, 전자, 기계, 화학, 방직 등이 기간업종이고 400여종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



▲ 중국 산둥성내 위해시(威海市)에 위치한 부원광학의 생산기지 전경

며, 농·수산자원이 풍부하다. 200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00여 개의 한국 업체가 진출해 있다.

풍부한 노동력이 무기인 나라 중국, 바꿔생각하면 그만큼 중국전체가 현재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잉여노동력이 많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8억의 노동력이 대기하고 있다는 중국은 그만큼 외자유치에 혈안이 돼 있고 지방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어 박춘봉 사장은 크게 놀랐다고 한다.

산둥성 위해시에서도 영성시 항서진내에 공장을 정한 박춘봉 사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곳 촌장에게 먼저 청하여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것. 의례적인 상견례쯤으로 여기고 자리에 임했으나 외자투자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며 향후 지원을 약속하는 당간부의 진지하고도 논리 정연한 언변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양국의 작은 만남의 현장은 다음날 지역방송에 방영됐을 정도로 중국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투자 유치에 대한 열의는 대단히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Q 빠른 속도로 중국진출이 추진됐고 조기에 안정화를 이룬 것 같은데 비결은?

A 우리에게 중국이란 대륙은 제품의 시장도, 원자재의 공급처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세트 메이커(Set Maker)와의 동반진출도 아니었던 까닭에 처음 한동안은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인지 행운인지 지난 5월말에 중국진출을 최종 결심하고 6월에 인수한 공장의 내부 수리에 착수하여 7월에 현지공장에 사람과 설비를 보내는 등 제반상황을 마무리짓고 8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생산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역시 시련이 아닌 행운이다'라는 생각에 의욕과 신념이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았던 중국진출이 이렇게 조기에 안정화된 것은 무엇보다 회사 간부들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한 중국지방정부의 훌륭한 외자유치정책과 지원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Q 한국의 공장과 중국 공장의 차별화 정책은?

A 중국공장은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 기술력 있는 품목



에 집중투자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이윤구조 생산체제의 시스템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사경영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Q** 먼저 중국에 진출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업체들도 많다고 하던데...

**A** 실패한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인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어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중국에 몇 차례 오가면서 그나마 안도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문화 등이 우리나라 50년대 이전의 농촌의 농민들을 연상시키듯 순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서 같으면 마음으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일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잔업이나 특근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고 들었습니다.

**Q** 그런 의미에서 중국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안은?

**A** 난 예전부터 '노사관계'란 말이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누가 '노'이고 누가 '사'란 말입니까? 그 말은 마치 종과 주인이라는 관계가 강요된 것 같아 보이는데 기업이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구성원이 100명이라면 사장도 그 중에서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회사는 누구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라



▲ 박춘봉(朴春逢, 現 韓國光學機器協會 副會長) 대표는 "국가적으로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도 중소기업 입장에서선 당장 생존경쟁을 위해 중국으로 가야할 입장"이라며, "정작 걱정만 하면서 국가적으로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100명의 회사인 것입니다. 단지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이런 생각이 다함께 공유되어진다면 중국공장도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 및 기업차원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현재 중국에 투자한 나라들을 보면 1위가 홍콩이고 다음이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의 순인데 특히 산동성에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다고 한다. 아무래도 같은 위도상에 존재하여 비행기로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랑 생김도 같고 정서가 비슷하다는 데서도 큰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위해서는 70~80%가 한국기업이 주둔하고 있을 만큼 이제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은 일반화된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한국경제에 성장정체등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산업 공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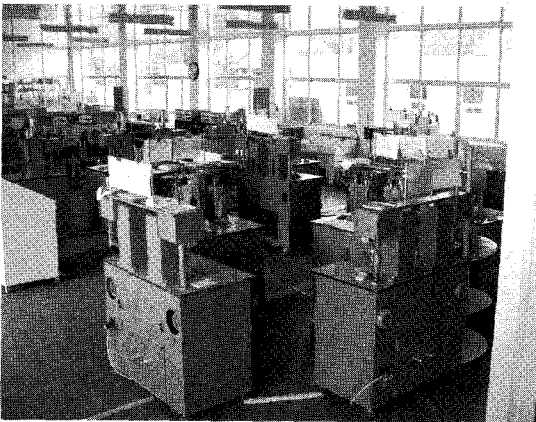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으나 세계적인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 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춘봉 사장도 기업의 입장에서 국내산업 전반에 미칠 총괄적인 문제점을 걱정하지만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생존경쟁을 위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Q 최근 중국 진출업체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A 물이 높으면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산업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 생산기지를 한국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내 산업이 발전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입장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발상의 전환 및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이고, 기업은 나름대로 끊임없는 경영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번에 중국 진출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Q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국내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



▲ 라인업이 갖춰진 공장내부 전경

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어라 보는가?

A 최근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을 우려하고 무한 경쟁시대에서의 경쟁력 상실을 많이들 걱정합니다. 여기에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제조업 근무 기피현상이 지적되고 요즘은 주 5일 근무제가 거론되면서 주부사원마저 서비스업종으로의 전직이 잇따르고 있어 일손부족이 야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국인 근로자마저 내년 3월로 한정된 근무기간 때문에 잦은 전직이 빈번하여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주름살을 늘게 합니다. 게다가 건설업종, 서비스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제조업 중에서 특히 휴대전화기 메이커와 같은 업종에서 경쟁적으로 임금인상을 선도하고 있어 가격경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 5일제를 조기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연간 약 40만 명이나 되는 현행 병역적령자의 의무부과를 현역요원과 중소기업의 특례의무부과만으로 의무부과를 단순화시킨다면 젊은이들이 제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조기술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 여성인력의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입증해주고 있듯이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능력은 세계 정상급이라고 하는데 정작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비율은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국가 경쟁력의 잣대는 사람의 질과 활용도라고 생각해보면 되새겨볼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결국 경쟁력 제고라는 의미에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탁아 및 육아시설의 구축이야말로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기여의 촉진



제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어우러졌을 때 무한경쟁시대에 국내 제조업들이 경쟁력을 갖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현재로서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응책이라면?

A 현재 관심있는 사람들은 공동화현상을 말하고 우려를 하는데 공동화는 하나의 물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동화 뒤에 오는 현상은 그야말로 허전하고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형상인데 그런 걸 예측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일단 기업입장에서는 생산라인은 비록 중국으로 옮기더라도 한국에서 숙련된 기술자를 통해 설계하고 개발하는 핵심능력은 이쪽에 남겨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쪽에서도 좋은 인력을 확보해서 서로 교류를 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체재로 가야할 것입니다.

Q 끝으로, 중국으로 산업기지 이관과 관련하여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나라와 조직의 흥망을 결정짓는 요인은 외부환경 변화가 아닌 내부역량의 대처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늘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는 간부들이 곁에 있고, 한결같이 신뢰를 해주는 고객이 있고, 순박하고 정이 흐르는 현지직원과 생산기지 등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내부 역량을 끊임없이 변화 및 강화시킬 수 있는 사원들의 열의가 한결같다면 가히 살맛나는 세상이라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정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한국과 중국에 사업장을 가진 4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보다 ▲금리 평균 2% ▲법인세율 3.2% ▲임금수준 8배 ▲공장분양가 4배 ▲물류비 1.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중국보다 공장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규제가 더 많을 뿐 아니라, 일손 구하기도 더 어렵다고 한다. 중국은 임금수준뿐 아니라 기업활동 환경에서 한국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5년 사이에 고용과 소득

을 창출할 제조업 대부분이 외국으로 이전해 국내 제조업이 몰락하는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이전 추세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동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올 1/4분기의 투자동향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는 부진한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분기 중 작년 대비 47.4%나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59.6%이었던 제조업 비중이 77.4%로 크게 늘었고, 중소기업의 투자비중은 전체 직접투자의 47.6%를 차지해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